

지역 발전을 위한 물 공급망 강화

기고

김진우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권수도사업단장



영산강과 섬진강은 전라도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여수시와 광양시 등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용수를 공급하여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물을 잘 관리하고 공급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이 잘사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물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국가 간의 산업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권수도사업단은 작년 1월 순천시 신대지구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전라도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물 공급망 강화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는 강수의 패턴이다. 예전에는 예측 가능했던 강수량이 이제는 갑작스럽게 폭우로 변하거나 오랜 기간 지속되는 가뭄으로 이어진다.

전라도 지역은 강수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수도 취수원 불안정, 물 부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불과 2년 전 우리는 최악의 가뭄 상황을 겪었고 심지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물 공급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권수도사업단은 극한 홍수에도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물길이 끊이지 않도록 남수저수지 등 비상 수원에 대한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완도군 보길·노화 지역의 반복적인 가뭄에 따른 비상용수공급 대책으로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 간 비상연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완도군과 협의하여 올해 하반기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래돼서 노후된 관을 단계적으로 새로 교체하거나 개량(관내부 청소, 기존 도막 제거, 재도장 작업)하기 위해 여수시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에 용수를 공급하는 광양(1단계) 광역상수도의 노후관 개량사업, 광양시 및 광양제철소 등에 용수를 공급하는 광양신·구계동의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단선 관로여서 사고 시 단수가 불가피한 시설의 복선화를 위해 남원시, 장수군 등에 용수를 공급하는 동화담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 목포시, 장흥군 등에 용수를 공급하는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등을 시행하여 수도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 추진 과정에서는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공사 중 지역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수용성과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건설사업 추진 중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분리보관 및 가능한 재활용을 하고 있으며 공사관리용 차량은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용하여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 건설현장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야간공사, 도로 굴착, 상수도 관로 내 밀폐공간 등 취약구간의 안전을 높이고자 매 순간 열정을 쏟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권수도사업단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회복력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물은 생명이자 사회의 기반인 만큼 최우선 과제는 물 공급망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지키는 일이다.

앞으로도 영·섬권수도사업단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해 전라도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나가겠다.

社說

지역 의료시스템 뒤흔든 조대병원 화재

예방 중요성 모두가 각성해야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에서 14일 화재가 발생해 환자와 의료진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10여 분만에 자체 진화되고 일부 의료진이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한 병원 관계자들의 활약이 컸을 것이다. 이번 화재를 통해 지역의 모든 다중이용시설들이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예방이 왜 중요한지'를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화재가 충격적인 것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중환자나 노약자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병원에서의 화재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조선대병원은 수술실이 비어있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수술 중이었다면 환자들과 의료진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병원은 또 수많은 전기 장비와 산소공급 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진다. 건물 규모가 크고 복

잡한 조선대병원의 외부 환경도 화재에 큰 취약점을 갖고 있다.

지난 2018년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나 2014년 발생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등은 안전불감증이 빚은 국가적 참사였다. 지역 보건 의료 시스템도 마비된다. 당장 조선대병원의 경우 화재로 인해 15개 수술실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역 응급 의료 시스템으로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암센터 등 14개 전문특성화센터와 25개 진료과 817병상을 운영중인 조선대병원의 기능 마비는 지역 전체 의료 서비스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미 건강 문제로 불안한 환자와 보호자가 화재로 또 다시 불안과 공포를 겪는다는 것도 문제다.

다중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수많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병원 등 지역 다중이용시설도 이번 조선대병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 예방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고품질 시대, 안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민소통 필요한 첨단대교 지상화 논란

일방 추진보다 신뢰 우선돼야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유일한 지상 구간인 첨단대교 노선을 두고 주민들과 광주광역시의 갈등이 깊다.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막대한 예산과 정부 승인,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는 대안으로 차선 확장, 우회로 확보, 보행로 정비 등 교통개선책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청회 현장에서 제기된 "광신대교는 지하화하고, 첨단대교는 왜 안 되는가"라는 질문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한 시의 해명은 "첨단대교는 내진설계가 돼 있어 안전하다"는 것이지만, 이는 시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기술적 설명일 뿐이다. 시가 주장하는 '지상 경전철의 안전성'이나 '소음 저감' 기술은 과학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수치나 설계보다 시민의 수용성과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지하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면,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일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용편익분석과 대안 비교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 특히 첨단대교 인근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과 상권이 밀집해 있고, 출퇴근 차량과 통학 인구가 많은 곳이다. 단순한 차선 확장만으로는 근본적인 교통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대중교통 수요 예측과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투자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 나아가 도시의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다. 광주시가 '설득'이 아닌 '통보'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이후 사업의 추진 동력마저 잃게 될 것이다.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을 놓고 이미 수년간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로 신뢰를 잃은 바 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첨단대교 구간에 대한 결정은 '행정의 논리'보다 '시민의 시선'에서 내려져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첼시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터 러더퍼드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FIFA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PSG)을 3대 0으로 꺾고 챔피언에 등극했다. 첼시의 리스 제임스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동료들과 환호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석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이 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개월도 안된 짧은 시간에 13조원에 달하는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된 것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 분위기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실제 새 정부 들어 발표된 전국 소비자심리지수, 도·소매업 및 여가·숙박업 체감 경기 등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3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보면 지역 상인들의 내수 진작 기대 심리가 여실히 드러난다.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RBSI는 '103'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3분기(114)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넘어선 수치다. 불과 한 분기 전인 올해 2분기(72)와 비교하면 무려 31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로 현장 체감 경기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여름 성수기 도래, 경기 부양 정책, 주식시장 반등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맞물린 결과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민생경제가 무너질대로 무너진 상황에서 소비쿠폰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가뭄 속 한줄기 빛 같은 단비가 되고 있다.

서민들은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벌써부터 어디에 사용할 지를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다. 그야말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소비쿠폰은 위축된 가계의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단초임은 분명해 보인다. 새 정부 역시 소비쿠폰이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에 희망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새 정부의 첫 소비 진작책이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소비쿠폰 기대효과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